

## ■ 연구원 소식

### ○ 3대 원장 및 상임이사, 감사 선임

- 지난 3월 1일 우리 연구원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병문 이사장님을 비롯해 모두 열 분이 참석해 열린 2019년 1차 이사회에서는 2018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9년 사업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 3대 원장으로 이강안(광복회 전복지부장) 회원을 모셨습니다. 연구원 설립 이래 지금까지 함께 해 온 이강안 신임 원장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간 상임이사로 수고해주신 변주승 이사가 임기를 마치고 신임 상임이사로 김건우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새롭고 신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리겠다는 다짐을 전해주셨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원을 이끌 이강안 원장님과 김건우 상임이사님께 큰 격려와 기운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제3차 해외역사탐방 안내

- 2019년 해외역사탐방이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역사탐방은 우리 연구원 운영위원인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 윤상원 소장께서 직접 기획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연방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舊 소련의 레닌그라드) 답사를 통해 극동아시아 연해주에서 시작한 답사 길이 유럽의 발트해에 닿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태극기가 태어난 날 (2019년 3월 6일)

세계 각국이 국기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인식에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달라는 미국 공사 로버트 슈펠트의 요청을 받은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하였다. 이게 최초의 사용례이다. 이른바 “이응준 태극기”로 2004년 미국 해군부 해상국의 자료에서 그 실체가 발견되었다. 2018년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이응준 태극기의 앞선 자료보다 두 달 먼저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도안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응준이 태극기를 사용함은 첫 공식사용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정부의 공인이 없는 약식에 가까웠다.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다가 경술국치를 당했다.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자 당연히 국기로서의 태극기도 없어졌지만, 일제의 제조·소지 금지에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대한민국 탄생의 시발점이 된 3.1 운동 당시 전국방방곡곡에 태극기의 물결과 만세 소리가 넘쳐났다.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했다.

그러나 소용돌이치는 중앙의 태극과 대각선의 팔괘라는 기본 개념 외에는 고정된 태극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의병, 임시정부 태극기의 도안이 모두 달랐다. 따라서 광복 무렵에 나온 태극기는 이후 태극이 좌우에 놓이거나 사괘 대신 팔괘가 그려지거나, 심지어 태극을 가운데에 두고 1괘를 가운데에 주욱 그은 약식 태극기까지 나오는 등 형태가 각양각색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 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했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 되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5·18 광주항쟁 당시 정권의 폭력에 쓰러진 열사들의 시신을 덮은 것도 태극기였고 1987년 6월 항쟁 때도 민인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내달렸다. 그러나 2017년에 들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태극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져버렸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극우단체들이 많은 태극기를 가져와 '촛불'에 대응하는 상징으로 태극기를 적극 사용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에 켜졌던 촛불이 애국심에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태극기(=애국)에 반대되는 촛불이 매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비뚤어진 애국심을 지닌 극우 세력이 자신들의 애국 정통성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깃발이라는 점에서 극우집단의 태극기 집회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일본의 극우단체가 사용하는 욱일기와 비슷한 이미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에 2017년 3·1절을 앞두고 광복회는 '3·1절, 태극기의 의미'라는 제목의 '입장'을 통해 "최근 무분별한 태극기 사용의 남발로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3·1절을 맞아 국민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 독립운동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해 엄숙한 마음으로 존엄성을 가져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역사적인 3·1절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일제의 총칼 앞에 무참히 산화하신 3·1독립운동 선열들이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9년 맞이한 3·1절에도 보수단체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아무 죄 없는 태극기가 136년 전 오늘 세상에 공인되었다.

## ■ 후원사업 안내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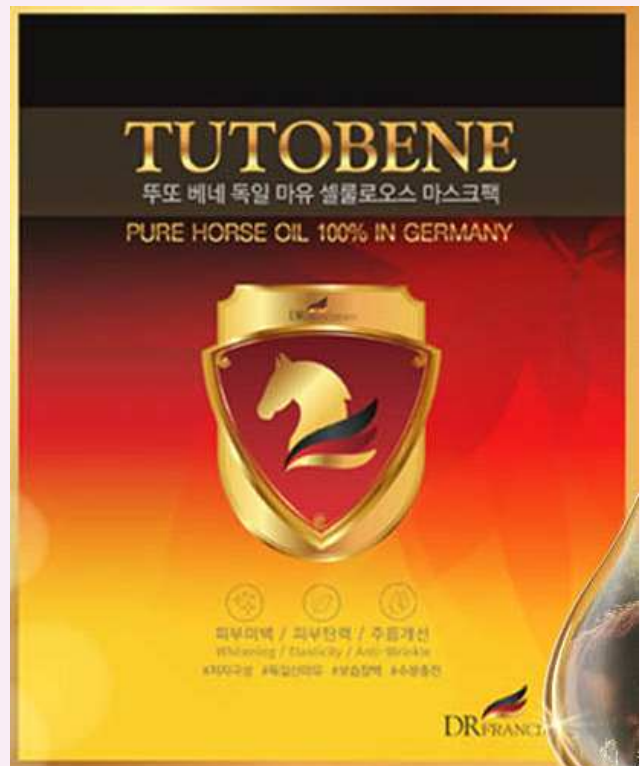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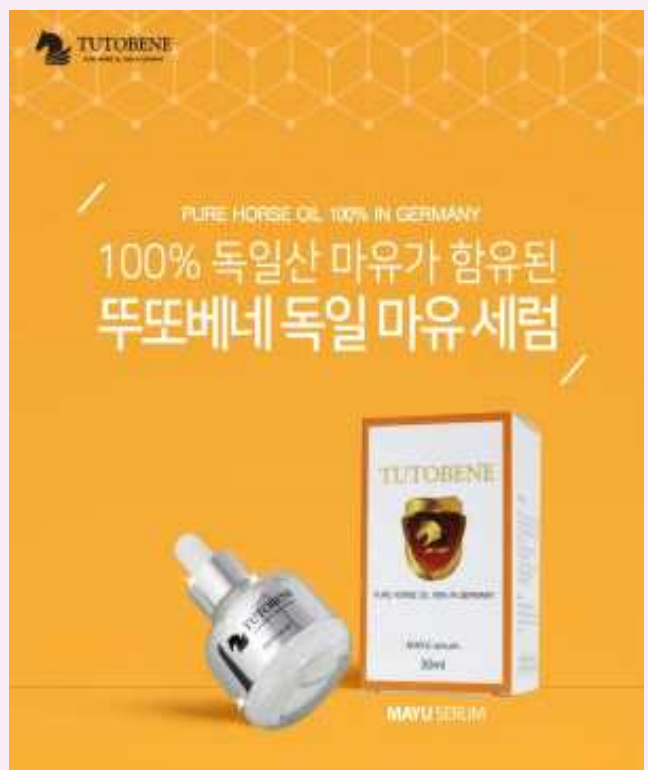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